하브루타 강화 활동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하브루타 꼼꼼 강좌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하브루타가 주목받는 이유

하브루타(Havruta)는 유대 인의 삶을 관통하며 수천 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그들만의 공부 방법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 인이 노벨상의 30%, 세계 자본의 20%,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학문과 금융은 물론, 법조, 예술,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 신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오직 그들에게만 대대로 전승되어 온 하브루타라는 공부 방법이 그들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브루타의 등장 배경

유대 인은 유일신(여호와)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애굽(이집트)에서의 포로 생활이다.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그들은 살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그들이 염원했던 것과는 달리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고, 수대에 걸쳐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며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왔다. 그러던 중 모세의 인도로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신으로부터 유대 인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의 율법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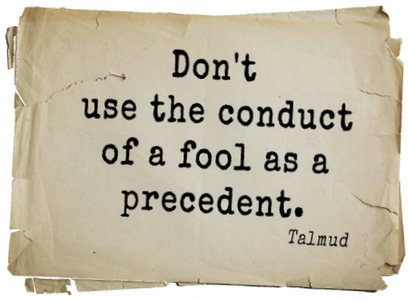
하나는 구약 성경(유대교에는 구약 성경만 있음.)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5가지 경전으로 '토라'라고 한다. 토라는 양피지에 기록된 '성문 율법'으로, 모세가 기록했다 하여 '모세 5경'이라 불린다.



▲ 토라

다른 하나는 성문 율법인 토라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은 6가지 범주(씨앗, 절기, 여자, 상해, 성물, 정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구전 율법'이다. 이 또한

모세가 신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각 지파의 장로, 선지자, 랍비 등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었다. 이 구전 율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미쉬나'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미쉬나에 관해 토론하며 각종 견해와 주석을 덧붙여 놓은 것이 바로 '게마라'이다. 그리고 미쉬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편집한 것이 바로 '탈무드'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판되어 우리가 읽고 있는 탈무드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탈무드가 아니며 탈무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 탈무드

모세가 받은 토라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출처: 개역 개정 성경

위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용어가 '쉐마'이다. 귀로 들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철저하게 준행하라는 의미로서 토라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행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고 그의 백성으로 살며 명령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명령이기 때문에 취사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만일 그리하려면 유대교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무엇을 명령했는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용어에는 '조각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즉 돌이나 나무에 글을 새기듯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언제 가르치는가? 부단히 틈을 만들어 가며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강론'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강론은 일방적인 강의나 설교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양방향 소통을 의미한다. 히브리 어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에는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 각자가 선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유대 인이 유대교 교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일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선 신이 준 율법인 토라와 미쉬나를 자녀들에게 부단히 가르쳐야 하며, 그 방법은 양방향 소통인 강론이어야 한다. 그래서 유대 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강론하며 가르쳐야 했고, 탈무드가 만들어진 후대에는 그 폭과 깊이가 더욱 확장되었다. 따라서 하브루타는 유대 인이 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양방향 토론식 공부 방법인 것이다.

하브루타의 어원과 정의



▲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유대 인의 모습

그런데 하브루타는 히브리 어 '하베르'와 어원이 같다. 하베르는 '짝', '파트너'라는 뜻으로, 하브루타의 핵심적 형식이 '짝과 둘이서 토론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생애 초기에는 엄마와 짝이 되고 조금 자라면 아빠나 형제와 짝이 되고 학교에서는 또래 및 교사와 짝이 되며 종교 공동체(회당)에서도 가족과(유대 인은 회당 예배도 3대가 같이 참석하여 짝을 이루어 토론함.) 짝이 되어 끊임없이 토론하는 공부 방법인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하브루타 연구자인 Orit Kent 박사는 '하브루타란 둘이서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같은 텍스트란 기본적으로 토라와 탈무드를 의미하며 같은 장소에서 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교육의 대안으로서의 하브루타

하브루타를 우리 교육의 대안으로 처음 제시한 전성수 교수는 보다 현대 교육학적 측면에서 "둘이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discussion)하고, 논쟁(debate)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우리 교육에서 '토론식 교육'이라 함은 여럿이서 의견을 나누어 좋은 안을 만드는 것, 즉 '토의(discussion)'이다. 국어학에서 말하는 토의가 현장에서는 토론이란 용어로 폭넓게 정착된 것이다. 이에 비해 '토론(debate)'은 하나의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서 찬반 주장을 다투는 형태를 일컬을 때에는 '디베이트'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브루타 교육 운동에서의 하브루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토의(discussion)를 토론으로, 토론(debate)을 논쟁으로 정의했다. '논쟁'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논쟁은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타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씨름을 하거나 말꼬리를 잡으며 다투는 언쟁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브루타는 유대 인들이 선민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 명령인 쉐마를 실천하기 위해 발생된 공부 방법이다. 따라서 역사, 문화, 종교가 다른 우리가 유대 인과 똑같은 정신이나 수준으로 하브루타를 생활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브루타의 본질과 현대 교육학적 유용성을 우리 현실에 맞는 공부 방법으로 발전시켜 가면 그 성과는 대단히 클 것이며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유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전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브루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브루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브레멘+ 부설 하브루타 교육 연구소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하브루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